

힘 빠진 호남총리론 ... 부총리·장관은 몇명?

경제부총리에 김광두·김종인·강봉균 ‘물망’

국정원장 김장수·농림축산부 정승·박재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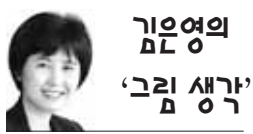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조각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호남 출신 국무총리 기용설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음에 따라 지역 민심은 정부 부처 수장 자리에 지역 인사들이 중용될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호남 인재풀이 그리 넓지 않은 현실이어서 과연 박근혜 당선인이 국민대통합을 상징할 수 있는 인선안을 내놓을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리는 관심이 크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성격이 융·복합인 만큼, 정치권에서는 삼성전자 기술총괄 사장을 지낸 황창규 전 지식경제부 국가연구개발 전략기획단장이 거론된다. 이석재 KT 회장이도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강점이 있다는 점에서 발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본인 의사에 무관하게 김효석 전 민주당 의원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외교부로 이름이 바뀔 외교통상부의 장관 후보로 인수위원인 윤병세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이 거론되고 있으며 내부 인사로는 이규형 주중대사, 김숙 주유엔대사 등의 이름이 들린다. 안보를 강조하는 새 정부의 첫 국방장관으로는 군 출신 인사가 기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국방안보추진단에서 국방안보분야 특보를 맡았던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육사 25기)과 국방안보추진단 위원으로 활동한 이성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사 30기)과 한민구 전 합참의장(육사 31기)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인 김장수 전 의원(육사 27기)은 참여정부 때 이미 국방장관을 지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국정원장으로서 중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통일장관 후보군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가 돌연 사퇴하면서 임대희 전 대통령실장이 후보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

다. 임 전 실장은 2009년 10월 당시 노동부장관 시절 싱가포르에서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논의한 비밀접촉 주역이다. 농림축산부로 이름을 바꿀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문성을 갖춘 농업 관료 출신이 장관 물망에 오르내린다. 대선 과정에서 국민소통본부 광주전남본부장을 맡아 호남 지역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지지를 호소했던 전남 출신의 정승 전 농식품부 2차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여기에 농업 분야 공기업 대표를 맡은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등도 후보로 꼽히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무등산에도 그림 속 감동을 찾는 순례자들이...



⑭ 불멸의 산

현대 독일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페터 한트케는 폴 세잔이 그린 생트 빅트와르산에 사로잡혀 그림 속 풍경을 찾아나선다. ‘세잔의 산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기행집은 그렇게 수개월간 화가의 영지에서 그 발자취를 더듬어간 기록이다. 한트케는 세잔의 산을 따라 걸으며 화가의 예술을 탐색해 가는 여정에서 자신이 추구해야 할 문학의 길도 새로워졌다고 고백한다. 생트 빅트와르산은 지금도 전 세계인들이 세잔의 그림 속 감동을 느끼기 위해 몰려드는 공간으로 이름나 있다.



폴 세잔 작 ‘생트 빅트와르산’

작품 ‘생트 빅트와르산’(1905~1906년 작)은 화가의 아틀리에에서 바라본 모습이다. 화가의 아틀리에에서 생트 빅트와르산까지를 ‘세잔의 길’이라 하는데 그 길로부터 펼쳐지는 전경의 별관은 병렬적인 선명한 붓 터치에 의해 형상화되어 있다. 우뚝 선 산, 주변 풍경과 이웃하는 아름다움이 평화롭고도 아련한 느낌이다.

생트 빅트와르산은 무등산과 자주 비교된다. 무등산 역시 지역의 예술가들이 수없이 조형적으로 재현해왔다. 생트 빅트와르산이 제2차 대전시 레지스탕스 단원들이 저항활동을 하던 역사적인 장소였다면 무등산은 광주의 오월과 격동의 세월을 온 몸으로 보듬어 주었던 존재다. 최근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예술적 이미지도서의 무등산에 대한 기대 또한 높다. 어느 날, 페터 한트케처럼 무등산을 그린 화가의 화집과 지도 한 장만을 들고 ‘불멸의 산’ 한 가운데로 걸어가는 순례자들의 모습을 상상해본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강운태(가운데) 광주시장이 16일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전격 방문, 김용준 위원장과 진영 부위원장을 만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광주 발전을 위해 약속한 공약사업들이 새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 인수위 방문

“7대 공약·현안 7건 적극 반영을”

강운태 광주시장이 16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들을 만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광주지역 발전을 위해 제시한 공약사업과 지역 현안과제들이 새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강 시장은 이날 김 위원장과 진영 부위원장을 포함해 외교, 국방, 환경, 문화 등 각 분과 위원회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을 비롯해 박 당선인이 광주에 약속했던 7대 공약과 함께 ‘동북아 상품거래소 설립’ 등 공약은 아니지만 지역에서 중시하고 있는 현안과제 7건에 대

해 설명하고, 새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박 당선인이 ‘호남의 상처와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고, 호남을 중심으로 국민 대통합의 역사를 쓰고 싶다는 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호남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시장은 “대통령 당선인께서 약속한 국민 대통합의 길은 지역 균형발전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광주발전을 위해 공약했던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지원과 배려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책임총리’ 물전너가나

차당선인 공약 불구 인수위 안팎 ‘관리형’ 거론

조무제 전 대법관·이강국 헌재소장 등 후보로

정부조직 개편안이 마련되고 국무총리 최종 인선이 빨라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국무총리의 위상이 헌법정신에 걸맞게 높아질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는 법률에 나와 있는 국무총리 위상이 지켜지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책임총리’로 일컬어지는 참여정부 때 이해한 총리의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와 노 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 시스템적으로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 총리는 국정을 주도하지 못하고 ‘대독’ ‘하세’ 총리에 머물렀다. 따라서 박 당선인이 총리에게 법이 부여한 권한을 부여하고 무한한 신뢰를 주는 한편, 총리도 박 당선인의 국정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관료사회를 통솔하는 ‘상호작용’이 이뤄져야 비로소 책임총리제에 근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헌법은 총리에게 대통령 보좌, 행정부 통솔에서 나아가 정부부처 장관 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은 총리가 중앙행정기관장을 지휘감독하고 이들의 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당선인도 이 같은 총리의 권한을 지키겠다고 대선 기간 수차례 공약했다. 박 당선인이

총리의 법적 권한을 소극적으로 보장하는 선에서 그칠지, 아니면 공약대로 책임총리제 수준으로까지 총리직을 운용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2인자’를 용납하지 않았던 박 당선인의 리더십 스타일 상 책임총리제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차기 정부 첫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 정부조직개편에서 경제부총리가 신설돼 경제를 총괄하게 되는 만큼, ‘경제통 총리’ 가능성은 작아졌다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호남 총리’를 등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지역보다는 능력’이라는 기류에 밀린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최근 인수위 안팎에서는 조무제 전 대법관 이름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거론된다. 조 전 대법관은 1993년 공직자 첫 재산공개 당시 6400만원을 신고해 고위법관 103명 중 꼴찌를 차지, ‘청빈관사’ 또는 ‘딸깍발이 관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헌법재판제도의 산증인’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도 후보군 중에 한 명이다. 지난 15일 사의를 표한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과 판사 출신으로 2004년 여성 최초로 대법관에 임명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서울 출신 목영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총리 후보로 거론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빛日만경

- 김중두



안풀리면 책임 물리면 되고 ...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파워리버캡!

!그린알로에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그린파워리버캡 출시!

그린파워리버캡은 100% 천연식물 밀크씨슬에서 추출한 실리마린이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간 건강지표를 나타내는 효소인 GOT, GPT 수치개선에 도움을 주며, 천연원료 비타민,미네랄(11종)이 에너지 대사 활동을 도와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지친 일상에 활력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헛개나무열매 추출물, 민들레 추출물, 표고버섯균사체 추출물, 윤지버섯다실체 추출물, 울금 추출물, 효모추출물(글루타치온) 등 부원료들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1%유지도 함유하지 않은 정제형 복합기능성 제품입니다.

섭취대상자

-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생활로 간 건강을 염려하시는 분!
- 잦은 회식과 야근에 늘 지쳐있으신 분!
- 업무량이 많아 피로하신 분!
- 쉽게 피로를 느끼시는 분!
- 활력 있는 생활을 원하시는 분!

그린알로에 제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알로에

FOR YOUR HEALTH

고객상담실 080-234-6588